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찰나의 권력으로 오만에 빠지면 실패한다

김 형 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4일에는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도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제58조)이 규정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

21대 국회는 삼권분립 헌법 정신과 국회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오로지 청와대 하명에 따라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밀어붙이는 통법부로 전락했다. 통합당은 '입법 독재의 완성'이라며 반발했고, 정의당조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했던 '유정회'가 떠오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작금의 '신종 독재'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정부 여당에 역풍이 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앞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통합당에 역전되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향후 정부 여당이 정책 실패에 무감각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을 잃어 가면 이런 추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는 그동안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른바 '집권 4년차 증후군'이 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4년차로 접어들면서 예외 없이 국정 운영 리더십에서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통상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엔 인사 실패로 휘청거리고, 중반에는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며, 임기 말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인사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레임 덕'(lame duck)이 아니라 정치적 뇌사 상태에 빠지는 '데드 덕'(dead duck)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현 정부는 작년 조국 장관 임명과 같은 인사 대참사로 도덕적 파탄을 맞이했다. 올해는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경색, 인천 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민심이 급격하게 이반되고 있다.

만에 하나 향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가 터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현 상황으로 봐서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게 됐다. 그 후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로 집권 세력은 깊은 혼돈에 빠져들지 모른다. 임기 말에 관료 사회가 등을 돌리면 권력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현 정부도 역대 정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정부는 인적 쇄신을 통해 최고 정책 전문가를 등용하고, 새로운 국정 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리서치는 매월 정부가 추진하는 12개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를 실시한다. 7월 3주차 조사 결과,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19%로 가장 낮았다. 정책 중요도 평가에선 일자리·고용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은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 안전(47%)과 주거·부동산(45%)이었다. 주거·부동산 정책은 3월 넷째 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중요도가 10% 포인트 증가했다.

주거·부동산을 최우선 과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반면, 긍정 평가가 지극히 낮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당은 집값 폭등을 이전 보수 정부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단언컨대, 정부가 정책 실패를 무시하고 찰나의 권력에 도취되어 다수결 폭력이라는 오만함에 빠지면 결국 집권 '4년차 증후군'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종교칼럼

아슬아슬

황 성 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아기가 뒤뚱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발을 뗀다. 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안절부절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이가 넘어질 듯 아슬아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기는 몇 발자국을 가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 이내 부모는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안아주거나 웃어준다. 이때 아기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대견함이 교차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지난달 동료 신부님들 모임이 있어 영암으로 이동 중이었다. 나주 혁신도시를 벗어날 무렵, 앞차가 차선을 조금씩 벗어나며 운전하고 있었다. '졸음운전인가? 아니면 낮술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들면서 내 마음이 불안했다. 혹시나 해서 경적을 울렸다. 잠깐 졸았었는지, 앞 차는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하듯 비상등을 켰다. 이제야 나는 앞 차의 불안함을 뒤로 하고 안전하게 내 길을 갈 수 있었다.

최근 필자는 코로나 시대에 '아슬아슬'이란 단어를 자꾸 묵상하게 된다. 필자의 업무가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와 연관되어 있어서인지 '아슬아슬'이라는 단어가 더 깊게 다가온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산하 시설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지금까지 휴관 상태다.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은 너무 크다고 한다.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개원 때보다 더 분주하고 조심스럽다. 시설에 올 수 없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간편 식품을 전달하고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대상자들의 삶은 '아슬아슬'하다.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은 더 녹녹지 않다. 체제 변화의 어려움과 탈북 시 겪었던 트라우마와 같은 깊은 상처들은 남한의 삶을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다. 더욱이 코로나 상황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전보다 더 세상과 지역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언어와 피부색에 대한 편견으로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 큰 차별의 시기를 겪고 있다. 불법 체류자이기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 고통과 좌절감이 크다.

비단 코로나의 상황이 이들에게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과 소외의 굴레에 놓인 어르신들,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눌려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며 취업까지 힘든 우리의 청년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우리들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아찔하다.

예수 시대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예수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도 않으셨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는 가장 작은 이들을 찾아 다니셨고, 이들과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가 찾아다녔던, 또 함께 했던 이들은 모두가 그 시대에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내몰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찾았고 함께 하셨던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에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의 방문과 동반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빛이었다. 그래서 예수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오 복음 11장 28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지난주 월요일, 나이 지긋한 택시 기사분이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 사무실을 찾아 주셨다. 코로나로 택시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직접 찾아와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아슬아슬'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 고

코로나 극복 위해 과학기술에 관심 가져야

김 영 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며칠 전 노인 복지시설 간부로부터 전화가 왔다. 코로나19로 노인 복지시설들의 폐쇄가 계속되고 있어 오히려 노인 복지가 악화되고 있는데 복지시설에 로봇을 많이 배치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또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 않고 있느냐,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품은 언제 나오는가 하는 질문도 자주 들어 온다. 개인 방역을 넘어 강의실이나 회의실 등 공간 전체를 방역하는 기술은 없는가도 물어 본다.

코로나로 지친 사회가 과학자와 과학기술 대학에 묻고 해결을 요청하는 간절한 호소다. 그리고 이러한 호소에 전 세계의 과학자와 과학기술 대학, 과학기술 기업 등 과학 진영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도 글로벌 수준의 대표 과학기술 대학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월 긴급하게 항바이러스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방호, 진단,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기전 연구 분야의 전문 교수진을 모두 모아 융합 연구를 시작했다. 지스트내 인공지능연구소, 생명노화연구소, 실험동물자원센터 등 관련 연구소들 간의 협조 체제도 구축해 집단 면역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전세계가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학이나 미국 사노피-GSK 등이 백신 치료제 개발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이달 중 국내에서 코로나 감염증 혈장 치료제의 임상 시험용 제조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바이러스 백신 관련 바이오 상장주들이 세계 주식 시장의 상위 20위를 석권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광산구는 마스크와 방호복이 필요 없는 선별진료소를 만들어 내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고, 국무회의에서 화제로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역 11개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만든 코로나 대응 진료시설이었다. 지스트도 항바이러스 연구센터의 방호 진단 치료 연구 개발에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며 정부 부처에 연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건 연구소건 기업이건 간에 예산이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800만 명에 이르러도 마스크, 진단 키트, 사회적 거리 두기 외에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을 정도로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이 어렵고 그에 필요한 많은 연구 인력과 실험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최초 발생했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과학기술은 인류가 전염병과 벌이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며 과학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정보통신 기업 바이두와 알리바바도 인공 지능(AI) 플랫폼을 개방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있는 곳에서 결국 치료 방역 기술이 나와 세계의 기술과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한국은 K방역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우수함을 발휘했지만 세계 최고의 연구 개발 성과에서는 뒤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마스크, 진단 키트 등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주도국이었지만 고부가가치 연구 개발에도 세계의 선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간 지스트, 카이스트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국책 과학기술 대학이 성장하는데 국민들의 지원이 컸고 그 덕에 각각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연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과학기술 대학도 국민들의 성원에 응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은 결정적 시기에 연구 개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광주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정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국민 건강, 복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과학기술로부터 찾아야 하는 시대다.

社 說

광주 부동산 광풍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데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광주는 부동산 규제 예외 지역이란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광주의 부동산 광풍 진원지는 구도심 일대로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 개발 업자와 투자자들이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북동 수창초등학교 일대로 이곳에 20~45층 초고층 아파트 30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업자들은 이 일대 땅을 싸게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비싸게 팔고 있고 여기에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이 이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땅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1년 사이 이곳 땅값은 3.3㎡당 300~330만 원에서 700~10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폭등했다. 문제는 부동산 광풍 피해가 원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분 쪼개기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합원 참여 시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 북구청과 광주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구청은 현재 수창초등학교 일대에 대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을 확정한 상태다. 부동산 광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다지만 무대책으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재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지분 쪼개기 같은 탈법을 막고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는 안 된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관계 기관이 할 일이다.

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대화로 해결을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오늘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관의 집단 진료 거부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전공의 55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분만·수술·투석실·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진료 거부에 나서 달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진료 지연 등 혼선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등의 국민건강권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 의료 활성화가 아닌, 왜곡되어 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지 못하는 의료 인력 양성은 과열된 병원 간 경쟁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권역별로 공공 의대를 신설해 맞춤형 공공의학 교육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이중의 고통만 안겨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레모네이드 두 병

TV를 틀면 하루 종일 트로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트로트 전성시대이다. 경연 방식이나 참가자가 무명 시절 겪었던 생활고 소개로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스타일은 다들 비슷비슷하다. 어찌 보면 촌스럽고 고만고만한 내용들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종일 채널을 돌려가며 트로트 삼매경에 빠진 노년층이 한둘이 아니다. 노래를 듣고 감격에 겨워 우는가 하면, 심지어 우울증을 이겨냈다는 간증(?)까지 나오는 판이다.

며칠 전 무심코 TV를 틀었다가 어느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울컥했던 기억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가상의 기획사 회장인 가수 장윤정이 신인들을 발굴해 트로트 그룹으로 데뷔시키는, '최애 엔터테인먼트'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최애'는 요즘 많이 쓰는 신조어인데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뜻한다.

장윤정이 첫 번째로 선발한 그룹 멤버는 광주 북구에 사는 박형석(26)이었다. 그는 어릴 적 트로트 신동으로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장윤정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최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나눈 이들의 대화 내용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관련 영상이 유튜브와 각종 매체에 퍼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팬이었던 박형석은 광주에서 장윤정의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찾아가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레모네이드 음료수 두 병을 건네주곤 했다. "왜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왔느냐"는 장윤정의 질문에 박형석은 "버스를 타면 음료수를 한 병밖에 살 수 없어서요"라고 답했다.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대목이다. 장윤정의 팬클럽 이름 또한 '레모네이드'인데, 박형석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에게 레모네이드 두 병을 꼭 건네고 싶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더 큰 울림은 장윤정의 뒷말에 있었다. "나는 네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줬다고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난 착한 사람이 잘됐으면 좋겠어." 트로트 마니아는 아니지만 '착한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윤정이 만든 트로트 그룹이 성공하길 바란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